

“경제 연계 신국방정책 세우라”

김동신 前 국방장관 인터뷰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전직작전 통제관 이양문제와 관련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이 9일 ‘한미 동맹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었다. 김 전 장관은 또 앞으로의 국방정책과 관련, 국방비 투자를 최적화해 국가 경제발전과 연관시키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전직작전통제관이 이양되면 유사시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은 어떻게 되나.

▲한·미연합군의 작전계획은 어떻게 되나. 작전계획은 한달 이내라도 만들어 낼 수 있지만, 그것이 실현에서 유효할지는 별개의 문제다.

—작전통제권 이양으로 한·미동맹은 어떻게 변화할 것으로 보는가.

▲한·미동맹은 계속되지만, 동맹관계는 상호 공동의 위협의식과 국익, 공동의 가치관과 신뢰가 기반이다. 전직작전통제관 이양으로 인해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제된다면 동맹관계가 약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국방정책에 대해 조언할 것이 있다면.

▲안보 및 경제상황이 크게 변화한 만큼 국방정책의 변화가 절실하다. 북의 핵 포기가 실현되지 않았고, 주변국과는 영토·자원 관련 이해 상충으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또 무역수지 적자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실업률 증가 등으로 인한 경제문제도 대두되는 등 안보와 경제 문제가 동시에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방정책은 국가 경제발전과 연계할 수 있도록 국방비 투자를 최적화, 국방력 극대화 및 국가 경제발전 기여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예비 후보자 등록제·유권자 의식 수준 향상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크게 줄었다

9일 현재 74건 그쳐...17대때 802건

4·9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 건수가 지난 17대 총선 때보다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18대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광주 28건, 전남 46건으로 지난 2004년 17대 총선 때 모두 802건이 적발된 것에 비해 704건이 줄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광주의 경우 모 예비후보를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10만건이 대량 발송된 데 대해 광주지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금품·음식물 제공 6건 ▲인쇄물 배부 등 3건 ▲사이버 이용 불법행위 3건 ▲전화 이용 불법행위 2건 등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금품·음식물제공 3건 ▲시설물 설치 등 11건 ▲전화 이용 불법행위 8건 ▲인쇄물 배부 등 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적발건수는 지난 17대 총선 때 광

주 지역에서 206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돼 고발 39건·수사의뢰 11건·경고 75건·주의 촉구 77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전남 지역에서는 고발 36건·수사의뢰 30건·경고 307건·주의촉구 211건 등 모두 596건의 위법 사례가 적발된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선거유착은 선거법 위반 적발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와 유권자 의식 수준의 향상 등으로 꼽았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선거운동에 제한을 받았던 정치신인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된 제도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사무원을 두고 현수막 설치, 이메일 홍보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지도를 높이고 표심을 얻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치자금도 모금할 수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민주 “영남권에 인재 없소?”

2차공모까지 69곳 지원 없어
지도부 ‘숨은 진주찾기’ 골몰

통합민주당이 영남지역에서 출마할 후보자 발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5일 공천 신청자 면접이 마무리됐지만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후보군이 없는 지역구가 69개 선거구에 이르기 때문이다.

영남권의 무신총 지역구는 부산 15곳, 경남 14곳, 울산 6곳 등 부산·경남지역이 35곳이고 대구 10곳, 경북 13곳 등 대구·경북지역이 23곳에 이른다. 이마저도 지난달말 2차 공모까지 실시한 결과다. 영남권의 민주당 당선 가능성이 낮은 데 따른 현상이지만 득표율에 따라 배정

받는 비례대표 의원 수를 감안한다면 후보를 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불모지인 영남지역에서 적어도 몇곳에는 ‘깃발’을 꽂아야 전국정당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도 내재하고 있다.

인재영입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손학규 공동대표와 총선기획단장인 신계륜 사무총장이 영남지역을 오가며 ‘진주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정부조직 개편·장관인사 파동 등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의 대치상황이 이어진데다 당내 공천배제기준 논란까지 터지면서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총대를 매고 있던 사무총장이 공천배제기준의 ‘그물’에 걸려든 것도 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공심위, 전여욱 의원 등 총선 후보 22명 추가 내정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9일 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지낸 장광근 전 의원을 서울 동대문갑 후보로 내정하는 등 수도권 지역 5명의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내정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공천이 내정됐거나 확정된 후보는 최고위원회 재심을 요구한 인사들을 포함해 모두 167명으로 늘어났다. 서울 양천에는 친이(친 이명박계) 성향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무위원을 지낸 김웅태 후보가 공천됐다. 이에 따라 강성만(신안 출신)부대변인의 공천티켓 확보는 무산됐다.

강동욱과 관악에는 윤석용 당 장애인위

원장과 김철수 당협위원장이 각각 내정됐으며, 경기 평택에는 박상길 변호사가 공천을 확정했다.

앞서 8일에는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다가 중도 포기한 고진화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탈락한 반면 고 의원과 경쟁했던 비례대표 전여욱 의원이 내정됐다. 또 친(親) 박근혜계 비례대표 송영선 의원(안양 동안갑)도 떨어졌다.

또 ‘친이’ 성향의 공학박사 출신인 권기근 부대변인은 통작갑에서 홍정욱 전 해럴드미디어 대표, 유정현 전 이나운서, 서정원 전 대표의 친척인 서장은 당협위원장과의 경쟁에서 이겼다.

/연합뉴스

4·9 총선 현장

장병완 “2013 광주 U대회 꼭 유치하겠다”



○장병완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지난 8일 북구 사회단체연합을 찾아 오는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의 광주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

장 후보는 이날 “기획예산처장관을 지내면서 유치활동비로 20여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국회에 입성, 대학스포츠연맹, 체육학회 등과 협력해 유치 활동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

지병문 ‘생활체육 동호인’ 찾아 의견 수렴



○지병문 의원(광주 남구)은 9일 봉주초교·봉선중학교·광주공원 등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주민들과 만나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

지 의원은 이날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공간은 지역민들이 건강을 다지면서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라며 “동호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

양형일 ‘예술의 거리’ 재개발 공약 제시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은 9일 예술의 거리 일대 4만여평에 대한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심을 갖는 한편 인근 예술의 거리를 리모델링해 발전시키고 유관 기관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

강기정 ‘보건의료정책’ 의견 청취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지난 7일 광주시 간호사회 이사회에 참석,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

강 의원은 이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간호사도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는 등 간호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면서 “간호사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지지를 당부.

김영진 ‘음해·비방 주장 정치인 퇴출돼야’



○김영진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최근 자신을 비난하는 음해성 글이 핸드폰 문자를 통해 무차별 살포되고 있는 것과 관련, 9일 광주시 선관위와 광주경찰청을 방문해 철저한 조사를 촉구.

김 후보는 이와 관련 성명을 내고 “일부 경쟁후보가 의도적으로 음해성 문자를 유포하고 있다”며 “악질적인 음해·비방공고를 하는 정치인은 정치관에서 영연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성토.

박우선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세울 터’



○박우선 통합민주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9일 동구 지역 시장과 경로당 등을 순회하며 지역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등 표방같이 애분주.

박 후보는 이날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소비자들이 대형 유통매장을 선호하는 바람에 재래시장의 장사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철저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

강운태 ‘기업체·사업 유치, 일자리 창출’



○강운태 광주 남구 예비후보(무소속)는 지난 주말과 휴일을 맞아 남구지역 상가와 합인점 등을 방문, 상인과 고객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

강 후보는 “철저한 지역 상권은 단기적인 처방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며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 또는 사업을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

이용섭 ‘광산이 광주 발전 원동력 돼야’



○이용섭 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를 예비후보는 9일 첨단 광암공원에서 열린 음악회에 참석, 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민심잡기에 총력.

이 후보는 이날 “광산 지역은 20~30대가 전체 주민의 51%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노동력이 풍부하”이라며 “행정자치부장

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풍부한 국정 경력을 바탕으로 광산이 광주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조영택 ‘표 창작예술인촌’ 조성 공약 발표



○조영택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9일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아시아 창작예술인촌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

조 후보는 이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을 지낸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아시아창작예술인촌을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조성,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다짐.

홍기훈, 저소득층 의료복지 실태 파악



○홍기훈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8일 남구 노인복지회관과 광주공원 등을 찾아 관계자들과 만남의 기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

홍 후보는 이날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의 의료 복지 실태를 파악해 독거노인과 저소득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며 지지를 당부.

정기남 ‘남구에 멀티미디어 도서관 건립’



○정기남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9일 월산동 금호평생교육관을 방문,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여론을 수렴.

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인구 21만 명의 남구에 도서관은 겨우 3곳”이라며 “국회에 입성하면 순차적으로 남구의 모든 동네에 멀티미디어 도서관을 건립, 청소년과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문화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다짐.

김태욱 ‘호남 인재 중앙진출 돕겠다’



○김태욱 한나라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9일 동구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남출신 인재들이 중앙정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새정부 핵심인사들에게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약속.

김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난 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정두언 의원에게 ‘호남출신 인재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최대한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문.

심재민 ‘정책 기조’ 자료집 발표



○심재민 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 갑 예비후보는 9일 ‘정책기조’ 자료집을 발표하고 민생정책 전문가로서 18대 국회의 정책경쟁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심 후보는 자료집에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 개발, 지역균형발전 정신 계승 그리고 낡은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며 “생산적인 정책경쟁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지지를 호소.

이윤정 ‘지역민 눈높이 맞는 정치 펼칠 것’



○이윤정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9일 성당·교회·시장·상가 등을 돌며 지역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바다 민심잡기에 총력.

이 후보는 이날 “서민들과 밀착한 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 정책을 펼치겠다”고 피력.

오형근 ‘여성 권익신장·차별금지 노력’



○오형근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임신, 육아, 교육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여성의 권익신장과 차별금지라는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는데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피력.

오 후보는 “사회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를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과 같다”며 의식의 변화를 촉구.

이병화, K리그 광주 홈 개막전 관전



○이병화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는 9일 월드컵경기장을 방문, 지역민들과 함께 K-리그 광주 상무 대 성남 일화와의 광주 홈 개막전을 관전하며 민심을 수렴.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월드컵 4강 신화를 창조한 광주에 프로축구단이 없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국회에 입성하면 광주 프로축구단의 조기 창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

서정성 ‘시민 공감 교통정책 내놓겠다’



○서정성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지난 7일 지하철·버스 준공영제·제2순환도로 등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공약.

서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매년 수백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지하철과 시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시내버스, 제2순환도로 등에 대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는 시민들 목소리가 높다”면서 “국회에 입성, 전문가 의견을 통해 시민들이 공감하는 교통 정책을 내놓겠다”고 역설.

곽동진, 지역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



○곽동진 통합민주당 장흥·강진·영암군 예비후보는 9일 장흥군 장평면·장동면 등을 방문,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얼굴알리기에 주력.

곽 후보는 이날 “지역민들과 밀착하면서 다양한 현안을 파악해 중앙 정부에 전달,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

박성수 교수 등 교수 112명 ‘김영룡 지지’



○전남대 박성수 경영대 교수 등 광주·전남지역 교수 112명은 지난 7일 김영룡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김 후보는 국방부 차관·재정경제부 세계 실장 등을 지내며 예산 집행과 국정 능력 등이 검증된 경제전문가로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설 후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

조기선 ‘서민 경제 활성화 대책 입안’



○조기선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9일 지역 식당을 돌며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 후보는 이날 “영세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카드수수료, 세금 인하 등의 대책을 입안, 시장 경제가 활기를 띌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지를 호소.

하승완, 영세상인들과 ‘대화의 시간’



○하승완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주월동·진월동 일대 상가를 돌며 영세상인들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민심잡기에 주력.

하 후보는 이날 “보성군수를 지내면서 검증된 행정 경험과 보성농축산물 세계적 명품 브랜드 키운 노하우를 남구 경제 발전에 쏟아부겠다”고 다짐.

유종필 ‘테마 영어공원 ‘도시숲 학교’ 조성’



○유종필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9일 도시숲 학교라는 테마 영어공원을 조성할 제안.

유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숲 학교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인 영어 돌입 교육과 달리 체험형 학습센터나 휴식형 문화공간을 통해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피력.

최시영 ‘농·어민 대변인 되겠다’ 출사표



○최시영 통합민주당 해남·완도·진도군 예비후보는 지난 6일 해남에 선거사무소를 열고 “농·어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대변인이 되겠다”며 민심잡기에 본격화.

최 후보는 “농·어촌 선거구인 해남·완도·진도군의 다양한 민심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인론으로 닦은 균형 감각을 바탕으로 주민 아픔을 이루민지고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다짐.

박판석, 야구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



○박판석 통합민주당 나주시·화순군 예비후보는 9일 열린 ‘2008 전남 춘계 야구 연맹전’에 참석, 초·중·고 야구감독 등 관계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민심잡기에 분주.

박 후보는 이날 “국회에 입성, 오는 5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 37회 노년체전과 10월 여수에서 개최되는 제89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호소.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